

[원하이텍, 주거용(아파트) 건설 시장 지상부 진입... 新시장 뚫었다!]

원하이텍(192390), SH공사 추진사업 중공슬래브 제품 첫 수주

▶ 차별화 제품 VPS(Void Plywood Slab)로 주택 시장 '첫 진출'

<2019-04-03> 원하이텍이 'VPS'로 아파트 건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데크 플레이트 기술혁신 1위 기업 원하이텍(대표이사 변천섭)이 3일,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 사업에 중공슬래브 시스템 VPS(Void Plywood Slab; 이하 VPS) 제품의 시공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주 금액은 약 5억 원으로, 데크 플레이트 업계 최초로 아파트 지상층에 진출함으로써 원하이텍만의 새로운 판로가 개척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계약으로 원하이텍의 VPS는 SH공사가 사업 추진하고, 고려개발이 시공하는 고덕강일 3지구 9단지 아파트 지상부에 적용될 예정이다.

VPS는 원하이텍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공슬래브 시스템으로, 기존 원하이텍이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인증 신기술 '중공슬래브공법(VDS)'과 동일한 구조적 성능을 유지하면서 데크 플레이트가 아닌 일반거푸집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된 제품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택 종합 계획에도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제품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주력 제품인 데크 플레이트는 벽식구조로 건설하는 주거부 지상층을 제외한 건축물과 지하주차장 등에 적용해왔지만 이번 VPS의 아파트 지상부 첫 적용으로 '주택시장'이라는 신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주거용 지상부 첫 수주를 계기로 향후 VPS의 수주가 확대 및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천섭 대표이사는 "원하이텍은 공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을 거듭해왔고, 이에 DH빔(보 데크), 노바데크(탈형 데크) 등 차별화 제품에 이어 VPS와 같은 중공슬래브 시스템까지 개발해 업계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향후 기동식 구조 아파트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주거용 건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함으로써 업계 내 원하이텍의 독보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전했다.

[참고자료] - 원하이텍 VPS 적용 사진

*VPS란? : 원하이텍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공재 적용 슬래브 공법.



사진 설명 : 원하이텍의 신제품 VPS를 시공하고 있는 모습.

▣ 자료문의 : 원하이텍 김지환 차장 (02-854-2828)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2-6011-2000 #120)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2-6011-2000 #121)